인생의 10가지 후회
– 인생십회(人生十悔) –

박재희
인문경영원 대표

• 성균관대 철학박사

• (전)포스코 석좌교수
• (전)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 인문경영원 대표
• 홍천 Salon In Moon 대표

무더웠던 8월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한기를 느끼는 9월의 끝자락은 늘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 한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 년의 반이 훌떡 지나고 한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이래저래 마음은 더욱 바빠지고 가슴 한곳에는 여한(餘恨)이 남는다.

세월의 빠르기가 하늘에 쏘아 올린 화살 같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나는 요즘, 돌이켜 보면 인생에서 기쁜 일도 많았지만, 후회할 일도 참 많았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쩌면 후회의 연속이라고 하나,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덜 후회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게 된다.

송나라 주자학의 창시자인 주자(朱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 10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북송 때 구래공(寇萊公)이라는 인물은 인생의 6가지 후회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반성과 후회는 새로운 나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하니 성현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후회할 일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부모

첫째 '불효부모사후회(不孝父母死後悔)'.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효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걸, 전화라도 한 통화 더 할걸,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 보았자 그때는 이미 늦었다. 왜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가슴에 후회가 더 남는 것일까? 이제는 한숨 돌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욱 후회가 크게 남는 것이다.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가 적을 것이다.

가족

둘째 '불친가족소후회(不親家族疎後悔)'.

가족 친지들을 제때 돌아보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가족과 친척이 멀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쁘다고 연락도 못 하고, 코로나19로 가족의 대소사에 참가하지도 못하다 보면, 결국 관계에 틈이 벌어져 남남보다 더 먼 남이 되고 만다. 나이 먹고 시간이 있어, 그때 형제와 친척을 찾아본다 한들, 이미 때가 늦었다. 형제들끼리는 만나면 서운한 말보다는 좋은 말만 하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어야 자주 만나고 싶다. 나중에 이별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미리 가까운 형제와 친척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배움

셋째 '소불근학로후회(少不勤學老後悔)'.

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배움은 평생의 과제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며 하루라도 빨리 배움에 동참하는 것이 나이 먹어 후회를 안 할 수 있는 비결이다. 나이 먹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10년만 일찍 이 공부를 했더라면 하는 말이다. 공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미래

넷째 '안불사난패후회(安不思難敗後悔)'.

편안할 때 어려운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고 난 후에 후회할 것이다. 위기는 편안하다고 안주할 때 찾아온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총애를 받을 때 버림받을 때를 생각하라!' 노자가 늘 하는 안정이 곧 위기라는 격언이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다. 비가 오기 전에 주춧돌이 젖는다고 한다. 습도가 높아져서 돌에 먼저 습기가 차는 것이다. 일이 터지기 전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사후(事後) 문제를 예방하는 비책이다.

절약

다섯째 '부불검용빈후회(富不儉用貧後悔)'.

돈이 좀 모여 부자일 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난한 뒤에 후회한다! 돈 버는 것이 어렵지만 쓰는 것은 한순간이다. 지금 돈이 좀 들어온다고 무작정 지출을 늘린다면 나중에 돈을 다 쓰고 나서 후회할 것이다. 검소함과 절약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치와 낭비는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후회를 하게 한다.

근면

여섯째 '춘불경종추후회(春不耕種秋後悔)'.

봄에 씨를 뿌려 경작하지 않으면 가을 수확 철에 뉘우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 후회한다.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지금은 편하지만, 나중에 후회를 부른다.

방비

일곱째 '불치원장도후회(不治垣墻盜後悔)'.

무너진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맞은 후에 후회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무너진 담장이 많다. 술술 새 나가는 돈이며,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이르기까지 미리 손보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무너진 담장과 같다.

이성

여덟째 '색불근신병후회(色不謹愼病後悔)'.

이성을 조심하지 않으면 병든 후에 후회한다. 이성과 과도한 관계는 몸과 마음을 소진 시킨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과도한 색욕(色欲)의 추구는 후회할 일을 남기는 것이다.

음주

아홉째 '취중망언성후회(醉中妄言醒後悔)'.

술 취한 뒤 함부로 내뱉은 말은 술 깬 후에 후회한다. 술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잘못 마시면 몸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술을 먹고 주정을 한다거나,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술이 깬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인생을 살면서 술 한 잔에 정신을 잃고 산다면 늘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관계

열 번째 '부접빈객거후회(不接賓客去後悔)'.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으면 떠난 뒤에 후회한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잘 대접해야 한다. 정성과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떠난 후에 후회하게 된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다. 나중에 잘하려고 한다면 이미 떠나고 없을 것이다.

봄날 꽃잎처럼 순식간에 피었다 지는 것이 인생이다. 후회하지 않고 산다면야 좋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후회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방식이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형제 친지들 자주 찾아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배우고,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다가올 위기에 미리 대비하고, 돈이 벌릴 때 훗날 돈이 나갈 때를 대비하고, 건강할 때 미리 건강을 챙기고, 술 마실 때 늘 내 언행과 행동을 살핀다면, 인생에서 후회를 적게 하고 사는 비결이다.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안불장식병시회(安不將息病時悔)'. 건강할 때 충분히 휴식하지 않으면 병난 후에 후회한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결국 건강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잃어도 건강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물과 지위에 눈이 멀어 몸을 혹사하다가 한순간 건강을 잃고 후회하기 전에 건강할 때 부지런히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KAIF